

## 광주·전남 大해부

&lt;제2부&gt; 문화도시 광주

## 문화산업 매출액 3,900억 전국 비중 1.4% 불과

## 1 문화수도 현주소

광주의 미래비전을 담은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 지 올해로 4년째를 맞는다. 지난 2007년 10월 확정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토대로 추진된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은 아시아 문화전당 착공을 빼놓고는 이렇다 할 성과를 끊기 어려울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문화수도의 핵심 인프라인 문화전당의 완공시기는 2008년 6월 불거진 옛 도청 별관 철거논란에 발목을 잡혀 당초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늦춰졌고, 광주 전체를 아우르는 '7대 문화지구' 조성사업은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역 문화산업 총매출의 전국 비중은 1.4%대에 머무는 등 문화산업 토양도 여전히 적반한 실정이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명실상부한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대안을 5차례에 걸쳐 조망한다.

## 문화전당 건립 지역·문화지구 조성 빠격

## 핵심인프라 문화콘텐츠연구원 유치 위기

문화 콘텐츠 산업 주요 지자체 매출액 현황(단위:백만원, %)

구분	출판	민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에듀테인먼트	합계	구성비(%)
서울	11,487,769	389,398	968,203	2,288,567	206,355	2,634,884	88,338	17,724,512	64.3
부산	567,496	26,158	23,597	112,940	10,165	339,699	13,672	1,093,727	4.0
대구	399,657	11,608	15,914	60,901	6,205	168,939	8,178	671,402	2.4
인천	236,215	14,669	11,686	47,358	2,146	117,737	2,411	432,222	1.6
광주	209,480	8,157	5,904	65,470	9,004	96,984	2,513	397,512	1.4
대전	207,038	10,523	5,984	45,472	2,034	110,553	3,247	384,851	1.4
울산	85,379	5,981	1,469	32,235	-	52,663	1,823	179,550	0.6
전북	74,847	4,649	2,453	51,985	2,985	70,956	2,552	210,427	0.8
전남	34,765	4,768	3,142	24,517	-	34,916	2,164	104,272	0.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8년 기준)

문화콘텐츠 산업 주요 지자체 매출액 현황(단위:백만원, %)

◇ 빙약한 문화산업=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 문화산업 백서'에 따르면 광주의 문화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3천975억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7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문화 중심도시 광주의 매출이 전국 매출액(27조5천552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그쳤다. 이같은 매출액은 부산(1조937억원), 대구(6천714억원), 경남(4천130억원)에 뒤지는 것이며, 대전(3천848억원)에도 바짝 끼기는 수치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 동력인 기업체 수에서도 광주는 열세다. 광주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체 수는 948개로, 전국(2만9천965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다.

임태별로는

출판업체(543개)가 가장 많았으며, 고부가 가치 문화산업인 음악(19개), 애니메이션(18개), 캐릭터(38개), 에듀테인먼트(5개) 부문 업체 수는 두자릿수에 머물렀다.

문화산업

관련 종사자수도 광주는 4천972명으로, 서울(8만9천628명), 경기도(2만6천602명), 부산 8천633명), 대구(8천76명), 경남(5천40명)에 뒤졌다. 광주 인력이 전국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로 그쳤다.

광주지역

문화산업 종사자는 출판(3천24명), 만화(274명), 음악(49명), 영화(1천5명), 애니메이션(121명), 캐릭터(453명), 에듀테인먼트(46명) 순이었다. 이는 고부가 가치 문화콘텐츠 부문 보다는 출판업계 인력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현상은

광주지역에 문화산업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데다 수년 동안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된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사업

가운데 하나로 옛 전남도 교육청

사를 매입, '시각 미디지털'의 거점시설로 조성하려는 계획은 3년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전남도 교육청과 부지매입 협상을 벌였으나, 가격 이견 차로 현재까지 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시는

매각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초기 건물 매입비(15억원) 전액을 국고에 반납했다. 또 교육문화·아시아 신과학자구 조성 사업도

사실상

계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문화산업의

핵심인프라인 문화콘텐츠기술(CT) 연구원 광주 설립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CT 연구원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종합계획'에 광주 설립이 명시된 기관이다. 광주시는 CT 연구원 건립을 앞당기기 위해 건립비 33억원을 국회 상임위에서 확보했으나, 정작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설립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이병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척박한 문화산업 기반을 탓하는 것에서 벗어나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계기로 광주에서 반드시 문화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며 "특히 첨단영상, 음악, 게임, 공예·디자인, 에듀테인먼트 등 5대 문화콘텐츠를 집중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디기만 한 문화수도 조성사업=지난 2007년 10월 확정·발표된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에 따르면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모두 5조3천억원이 투입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계획의 골자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을 축으로 문화수도 조성 과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광주시를 7대 문화지구로 나눠 문화 환경·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사업이 옛도

청 별관 논란에 묶여 1년3개월여 표류하면서 전당의 건립시기가 당초 예정된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늦춰졌다.

더 큰 문제는 광주 전체를 아우르는 '7대 문화지구' 조성사업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역 문화산업 총매출의 전국 비중은 1.4%대에 머무는 등 문화산업 토양도 여전히 적반한 실정이다.

문화수도의 핵심 인프라인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공사 현장. 오는 2014년 완공 예정인 이 공간은 ▲민주평화 교류원 ▲아시아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 예술극장 ▲어린이 지식문화원 등으로 구성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 광주 문화산업 일으키려면

## 특구 육성·펀드 조성... 투자환경 구축 급선무

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과 맞물려

광주에서 문화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문화특구(투자진흥지구) 육성, 문화펀드 조성 등 문화산업 투자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문화산업을 통해 도시 경제에 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자본을 끌어들여 문화산업 관련 업체들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과 동부경찰서 일대(부지 1만5천233㎡)를 투자진흥지구로 조성하기로 하고 국비

30억원을 부지 매입비로 확보했다.

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추진단은 광주시와 사업 추진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지난해 말 예산 전액을 국고 반납했다. 투자진흥지구에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 문화산업 업체를 입주시켜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산업 특구로 만드는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문화산업 특구를 통해 도시 경제에 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자본을 끌어들여 문화산업 관련 업체들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특별법'에는 광주시가 민자유치를 위해 민자유치 추진단과 민자유치부분을 설치하도록 명문화돼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유보되고 있다.

광주시가 자체 단독으로 국내외

투자유치에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단이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에 나서 관심을 모고 있다.

추진단은 올 상반기에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해 지역금융사 등과의 네트워크구축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2011년 이후 예산 확보 한다는 복안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자치단체, 지역 금융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문화산업 토양을 구축할 수 없는 만큼 지역 사회의 적극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

## 영/화/안/내

## 메가박스

## 콜롬버스시네마

## 하미시네마

## 씨네스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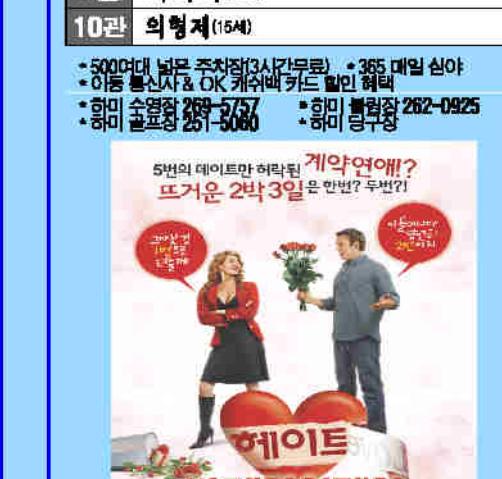
## 제일시네마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시간에 포함): 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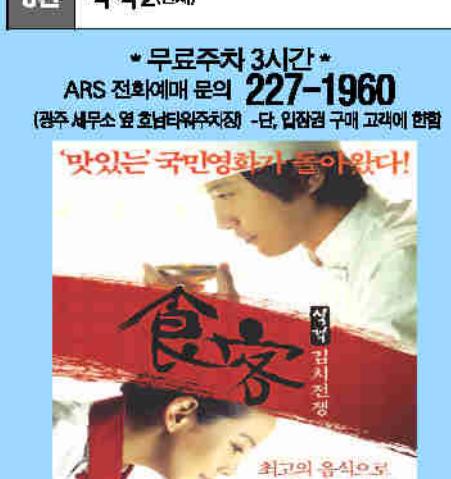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hamichinema.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cinemas.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primuscinema.com/www.jeolichema.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primuscinema.com/www.jeolichema.co.kr